

수도권 과밀화 방지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기업들 지방투자 특전 소멸

강운태 시장 "세제혜택도 없는데 누가 오나" 강한 불만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와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폐지키로 해 비수도권 지자체와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의 지방투자를 되레 막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를 도입하는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기업이 투자만 하면 세제혜택을 주던 것을, 고용기준을 추가해 투

자와 고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임투공제'는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1982년 처음 도입된 이후 21년째 유지돼 왔다.

이 제도는 기업이 3000억원 시설투자할 경우 7%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시설투자비 3000억원에서 세액공제 210억원을 뺀 2790억원의 자금조달만 하면 된다.

특히 농업·어업·제조업 등 32개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이 제도를 통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세액을 공제받고 있어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와 재계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들의 지방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상의 광주경제포럼 조찬세미나에서 '임투공제' 폐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막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시장은 "대표적 지방투자 우대정책인 '임투공제'를 폐지하면 지방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돼 지방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또 "첨단산업으로 갈수록 투자와 고용의 상관관계는 적어진다"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회귀를 바

라는 행태다"고 비난했다.

광주상의 등 경제계도 기업투자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임투공제 폐지하는 것은 투자에 악영향을 끼쳐 경기의 불씨를 악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세금부담 때문에 투자계획을 축소·수정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IT산업이나 대규모 시설투자에서는 고용창출이 쉽지 않다"며 "임투공제를 폐지하면 장차나 시설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창업열기 다시 '시들'

8월 신설법인수 132개 전달보다 7% 감소

대출여건 강화 등 악재... 전남은 26개 줄어

광주지역 법인 설립 건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올해 들어 되살아나던 창업 열기가 다시 식고 있다.

2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신설법인은 132개로 전달(142개)보다 7.0%, 지난해 같은 달(144개)보다 8.3% 감소했다.

이는 여름 휴가기간으로 계절적 창업 비수기인데다 최근 출구전략 등으로 은행권의 대출여건이 악화됐고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오르는 등 악재가 겹친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지역 신설법인 수는 지난 6월

147개, 7월 142개로 3개월 연속 줄어 들었다.

특히 올해 들어 1~5월까지 새로 생긴 법인은 73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4개보다 11.1%(74개)나 급증했으나 6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6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신설법인은 42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492개)보다 14.4%(71개) 감소했다.

올들어 전남지역 신설법인 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 전남지역 신설법인은 128개로 전달(154개)보다 16.9% 줄었

고, 지난해 같은 달(138개)보다도 7.2% 감소했다. 1~8월까지 전남지역 법인 설립 건수는 1089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63개보다 무려 13.8%(174개) 줄어들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신설법인 수가 4605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늘었다. 8월 신설법인 수는 9년 만에 최고치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새로 생긴 법인은 4만1041개로 최근 5년간 1~8월 누계 평균(3만699개)보다 13.7% 증가했다.

지난달 신설법인 증감 현황을 업종별로는 보면 제조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서비스업이 3.7%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14.6% 줄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공공비축 쌀

연말까지 8만5500t 매입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2010년산 공공비축용 쌀 34만t을 올해 말까지 전국 4800여 곳에서 매입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전국 물량의 25.1%인 총 8만5500t(광주 3570t, 전남 8만1930t)의 공공비축용 쌀이 매입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월6일까지는 물벼 형태로 6만t을, 다음달 25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건조벼 형태로 28만t을 매입할 방침이다.

2010년산 공공비축용 쌀의 우선 지급금은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4만5000원이다.

그동안에는 우선지급금을 당해년도 7월까지 산지쌀값의 80~95% 수준에서 결정했으나, 올해는 지난 15일 기준 2010년산 햅쌀 가격(14만6456원/80kg)을 40kg 벼로 환산한 가격 5만5144원의 90% 수준에서 결정했다.

이번 우선지급금은 지난 15일 통계청이 조사한 2009년산 산지쌀값을 벼값으로 환산한 40kg 포대당 4만4050원보다 950원 높은 수준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쌀 수확량과 10월 중 산지쌀값 추세 등을 반영해 우선지급금 수준을 다시 산정한 뒤 11월 중 중간정산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노사 상생발전 다짐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광주경영자총협회회원 200여명이 28일 오전 광주 동구 무등산 관리사무소 앞에서 노사 파트너십과 상생 발전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역민 소비심리 2개월째 하락

한은 조사, 9월 CCSI 111 ... 전달보다 2포인트 내려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소비심리가 2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지역 374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0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11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전남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11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4월 114, 5월 113, 6월 112

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7월에 115로 반격 상승했지만 지난 8월부터 2개월째 내리막을 기록하고 있다.

6개월 전과 비교한 올 9월의 현재 생활형편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2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6개월의 가계수입을 예상하는 가계수입전망CSI도 103에서 102로 소폭 하락했다.

또 9월 현재 경기판단CSI(103→95)는 전달보다 8포인트나 하락했으며 향후경기전망CSI(109→107)도 2포인트 내려갔다.

취업기회전망CSI(104→98)는 6포인트 하락하며 기준치(100) 밑으로 떨어졌고 6개월 후의 물가수준전망CSI(146→142)는 4포인트, 금리수준전망CSI(135→130)는 5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앞으로의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생활형편 소비자동향지수(43%), 수출·환율 등 대외요인(23%), 고용사정(18%),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11%) 등을 꼽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역 중소기업 업황 '긍정적'

중기중앙회 107곳 조사 ... 5개월만에 기준치 회복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체들은 다음달 업황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 봤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영태)가 지역 중소기업 107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 중 중소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SBHI(중소기업 건강도지수)는 100.0으로 전달(97.5)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5월 102.0을 기록한 이후 5개월만에 기준치(100)를 회복했다.

이는 최근 지역 업체의 생산 및 내

수경기 회복, 금리동결 등에 따른 자금사정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광주지역 업황(103.3)이 전달(95.3)보다 8.0포인트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연이은 호조와 기아차의 무분규 노사 합의, 생산 증가 등에 따른 협력업체의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SBHI는 5점 척도로 조사해 응답업체 수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경기예측지수로, 100 미만이면 전달에 비해 '악화', 100을 초과하면 전달보다

'호전'을 뜻한다.

항목별로는 생산(98.5→100.0), 내수(95.3→98.0), 수출(90.0→90.9), 경상이의(92.9→94.4), 자금 사정(91.0→94.0), 원자재 조달사정(94.4→99.0) 모두 전달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설비(101.5→101.5)와 제품재고(99.5→101.0)는 기준치 100을 넘겨 적정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고용수준(88.5→88.9)은 기준치에 못미쳐 인력부족 현상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영으로 상황으로는 원자재가격 상승(60.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내수부진(56.0%), 인건비 상승(36.0%), 판매 대금 회수 지연(33.3%), 인력 확보난(32.0%) 등의 순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소 10곳 중 9곳 "돈줄은 역시 은행"

정책자금·회사채 이용 각각 4%, 0.3%에 그쳐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 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50인 이상 국내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2.7%가 "은행차인을 통해 자금을 주로 조달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책자금을 주로 활용한다는 곳은 4.0%, 비은행 금융기관과 주식·회사채 발행에 의존한다는 답은 각각 3.

0%와 0.3%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에 편중돼 앞으로 추가 정책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 경영부담이 심해질 것"이라며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정책자금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봤다는 중소기업은 30.3%에 그쳤다.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불만으로

는 과도한 담보요구(31.9%), 까다로운 심사요건(24.4%), 짧은 만기(11.2%), 높은 대출금리(10.6%)가 꼽혔다.

/*연활뉴스

코스피지수	1,855.97 (-4.86)
코스닥지수	487.74 (+1.45)
금리 (국고채 3년)	3.37% (-0.02)
원·달러 환율	1,146.30원 (-1.9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제발
멈추기만 해도 땡큐죠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에 신경 쓰이면 효과가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18세~65세 남성) 170명 대상 임상시험 결과, 모발 개수와 굵기가 증가되어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실

■ 마이녹실 임상결과

참여자의 92.9%가 효과 확인

매우호전	호전	약간호전	기타(호전없음, 악화)
2.94%	27.65%	62.35%	7.06%

전국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마이녹실 5% 24주간 임상시험 결과, 158명 중 92.9%가 호전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매우호전 5명(2.94%), 호전 47명(27.65%), 약간호전 106명(62.35%)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 대한 5% Minoxidil 외용액의 공개 다기관 임상연구(제4상 임상시험, 대한모발학회 공동연구) - 대한 피부과학회지 2009년 3월호 발표

■ 임상연구 참여기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관동대학교 명지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외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상 가나다 순) 14개 대학병원 피부과 공동참여

바르는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1일 2회 4개월 이상 꾸준히 바르십시오

검색어: 마이녹실

제품문의 | 080-024-5525
02-2600-3884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사와 상의하십시오.